



# 국채시장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가칭)」 출범 운영

- 국고채 발행 증가, WGBI 편입 개시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총괄 자문기구 설치 추진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발행 규모의 확대,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시 등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채시장 자문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1.9일, 국고정책관 주재)하여 국채시장 지원기관, 연구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참석 : 재경부, 거래소, 결제원, KDI, 자본연, 금융연, PD社, 외국계 및 장기투자기관 등

금번 회의에서는 우선 KDI가 대내외 경제환경과 '26년 국채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투자기관들이 국내의 채권시장 주요 이슈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재경부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수렴·자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는 총괄 자문기구의 필요성과 구성방향을 설명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위원회 설치·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훈령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분기 중 공식 기구로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국채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5140)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pymwm@korea.kr)
			사무관	박가영 (gayoung0816@korea.kr)

